

'여교수 채용'에 대한 단상

최근 서울대의 한 여교수가 여교수 비율이 10%까지 올라갈 때까지 남녀 동등한 조건이라면 여교수를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서울대 여학생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여교수의 비율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나마 여교수가 있는 곳은 간호대, 음대, 생활과학대 뿐이고, 공대, 법대, 경영대 등에는 아예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 출판인은 " '여교수를 쓰면 불편하다' '여교수는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다' 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도는 대학사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차별'을 시정하라는 여교수들의 조용한, 그러나 단호한 항변이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필자는 이 말을 듣고 이를 군대식 문화와 연결지어 생각해보았다. '군대식 문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모아 한가지로 요약한다면 '상하 명령과 복종의 문화' 라고 할 수 있겠다. 군대내에서는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계급이 높은 사람의 명령 앞에서 어떠한 개인적 의견이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항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 국가는 군대의 창설시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징병제!대한민국의 모든 신체건강한 남성은 최소 2년 2개월동안 군에 복무해야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물론 편법을 동원해 알게 모르게 빠지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우리 국가가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하자.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이 타살이든 자살이든 간에 상관없이-만일 그것이 자살이라 해도 사회에서 멸절하던 한 젊은이가 '군대'에 들어갔다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군대'내부의 책임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필자는 여기서 의문사 문제를 들먹이려는 것이 아니다. 군대의 개인의 인권이나 사상적 자유, 견해나 의견을 무시하는 작태, 오로지 명령과 복종의 관계만이 성립되는 그곳에서 최소 2년 2개월을 경험하고 사회에 나온 '교육된' 남성들이 지배하는 이 사회는 과연 어떻게 하는 의문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여권이 신장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지극히 남성중심의 사회임에는 틀림이 없고, 대부분의 사회 여러 분야를 남성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은 발붙이기가 힘들다. 그것은 이미 '군대'를 통해 '교육된' 조직에 순응하고 명령과 복종에 익숙한 남성들이 사회 여러분야의 우두머리로 자리잡고, 그의 휘하에는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부릴 수 있는 사람만을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군대'에서 '교육받은' 자기들끼리의 세상을 만들으려는 것이다.

대학사회 또한 남성들이 우두머리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사회와 총장이 휘하 교수들을 마음대로 부리며 조직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여성'교수 보다는 '남성'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더 편리(?)했을 것이다.

80년대 서울대의 여학생 비율은 20%가 될까말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30%까지 급증했고 올해는 37%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학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동안 서울대 여교수의 비율은 전체 교수 1,487명 중 겨우 104명으로 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해 그만큼 능력있는 여성박사가 없다는 말 아니겠느냐 라고 항변하는 분이 없기를 바란다. 전국 162개 대학의 여학생이 36.25%이고, 석박사 과정의 학생은 37.68%라고 하니 그러한 주장은 37.68%의 여학생들이 모두 바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울대 여교수의 비율이 이토록 낮은 것은 왜인가? (물론 이것은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앞서 필자가 언급했듯 서울대의 수장들이 부리기 편한 '남성'들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은 그것 뿐이다.

따라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남성들에게 '교육된' 군대식 사고방식과 문화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제거하는가? 그것은 후에 필자가 다른 글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논의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여기서는 문제점만을 파악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필자의 주장에 근거해 필자는 서울대 한 여교수의 그러한 주장을 적극 지지함을 밝힌다.